

# “니들이 활자를 알아?”



나이가 들어 갈수록 예전에 보이지 않던 익살스러운 연기로 시청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들이는 탤런트 신 구. SBS 창사 특집드라마 '그대는 이 세상'에서 활판인쇄를 고집하는 고집 센 노인 동만의 역을 여과 없이 소화해 낸 그를 만나 촬영 뒷이야기를 들어봤다.

△ 출연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.

- 내가 결정했다고 하기보다는 방송국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. 내가 가지는 이미지 때문인지 삶에 힘겨워 하는 노인네 배역들이 많이 들어온다.

△ 드라마 속 동만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?

- 작가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.

△ 드라마 속 동만을 평가해 달라

- 고집스럽고, 한편으로 미련스럽기까지 하다는 느낌을 받았다. 동만이 활판에 매달릴 때 가족들은 또 어떻게 지냈을 것인가. 가족을 챙기거나 했을까... 이런 생각들로 인해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.

△ 만약에 드라마 속 동만의 처지가 된다면 활자를 고집할 것 같은가?

- 장담할 수 없다. 드라마의 내용대로 50년 만에 글자가 모두 없어진다면 그건 분명 큰 문제일 것이다. 하지만 그건 노인네의 생각일 뿐이지 않은가? 노인이 활자를 고집했던 건 급변하는 세대를 따라잡을 수 없는데서 오는 허탈함이랄까... 뭐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자기 만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.

△ 드라마 종영 후 남아 있는 잔상이 궁금하다.

- 노인네에 대한 생각인데 활자에 대한 사랑은 대단했다. 다만 그 이면에 가족이 겪어야 했을 고통이 안타까울 뿐이다. 또 한가지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인데...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노인네처럼 소중한 사람과 가정에 대한 의미를 잊고 산다. 소중한 것이 없어진 후에야 느끼는 허탈감은 아무 필요가 없다. 이미 그 사람이 옆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.

△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다. 비결이라도 있나?

- 노년에 인기는 무슨... 아무튼 고마운 말이다. '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' 등을 통해 얻은 시너지 효과 같다.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 가니까 그간 쌓인 연기에 대한 노하우가 나도 모르게 드라마에서 녹아들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들 하시지 않나 싶다.

△ 마지막으로 인쇄인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.

-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풍족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다. 마음이 부자가 되어 가는 것이다. 그런 책들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 주고 싶고, 내년에도 지금의 자리를 잘 쥐어서 마음과 정신을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.

〈이용우기자〉